

국정뉴스



문재인 대통령, '아세안+3 정상회의' 참석

한-아세안, 한-메콩 정상회의에 관심·성원 당부

문재인 대통령이 11월 3~5일, 2박 3일 간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아세안+한·중·일 정상회의'와 동아시아정상회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정상회의의 일정을 소화했다.

또한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한 아세안 10개국 정상들과 만나 이달 말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한-메콩 정상회의에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외교와 시장 다변화를 위한 신남방정책을 강조해 온 바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회의에 앞서 아베 일본 총리와 환담했다.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 개최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선 동북아의 평화 주제로...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이 11월 17일 태국 방콕에서 열렸다. 정경두 국방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이 참석한 이날 회담은 아세안확대 국방장관 회의(ADMM-Plus)를 계기로 이뤄졌다.

정 장관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최근 인접 우방국인 한·일 간 역사, 정치, 경제 문제로 안보 협력이 크고 작은 난관에 봉착해 있는 안타까운 순간"이라며 "이번 회의를 통해 한·미·일 3국의 공동 가치와 안보 이익을 바탕으로 현재 관계가 발전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정부 관계자는 "한·미·일은 3국의 안보협력에 대해 약속했다"고 전했다.

주

한국자유총연맹

우) 04605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72
☎ (070)7122-8057

◆시·도지부 연락처

서울 (02) 849-7871
부산 (051) 808-7960
대구 (053) 621-9880
인천 (032) 868-0113
광주 (062) 672-5004
대전 (042) 242-7601
울산 (052) 276-4400
세종 (044) 865-4522
경기 (031) 235-6166
강원 (033) 254-6670
충북 (043) 253-7770
충남 (041) 881-6045
전북 (063) 252-1797
전남 (062) 654-2340
경북 (054) 973-6312
경남 (055) 282-2332
제주 (064) 751-0191

자유칼럼

유비무환의 자세로 안보역량 강화해야



전인범 | 한국자유총연맹 부총재,
전 육군 특전사령관

지금으로부터 70년 전인 1949년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한 해이다. 그 해에 우리나라가 미국과 국교를 수립했고, 우리 군의 해병대가 창설됐다. 또한 1949년 6월 29일에는 주한미군이 군사고문단 500명만 남기고 한반도에서 완전히 철수했다.

광복 후 이때까지 남북 간에는 38선을 연하여 870여 회의 크고 작은 군사적 충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군은 이런 저런 사정으로 인해 한반도를 떠났다.

1950년 1월 12일 애치슨 미 국무장관

은 미국신문기자협회에서 행한 '아시아에서의 위기'라는 연설에서 처음으로 미국의 극동방위선을 언급했다. 우리에게 는 이른바 '애치슨 라인'이라고 더 잘 알려진 연설이다.

제2차 세계대전 전후 아시아에서의 공산주의에 의한 영토적 야심을 저지하기

전쟁의 비극이 발생했다. 당시 남한 주요 당직자가 전쟁이 나면 "점심은 평양에서 먹고 저녁은 신의주에서 먹겠다"고 호언장담했다 한다. 국민을 안심시킨 것인지 기만한 것인지 그 속은 알 수가 없다.

전쟁으로 인해 남북한의 민간인이 모두 250만 명 정도가 사망했다. 통계에 의

사실이다. 그리고 북한군은 여전히 전쟁을 준비하고 있고 우리는 또 그에 대비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게다가 지금은 70년 전에는 없었던 핵무기라는 가공할 만한 파괴적인 무기가 북한 쪽에 있다.

국익 앞에서 국제질서는 냉혹하게 움직인다. 동맹을 튼튼히 하고 외교를 다변화해야 함은 당연하겠지만 무엇보다도 국방을 튼튼히 해야 한다. 6·25 때와 같은 호언장담이나 감언이설로 인해 다시는 국민이 전쟁의 참화나 비극을 겪어서는 안 된다.

국방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결의만 다져서는 안 된다. 행동으로 뒷받침하고 결과로 보여주는 것만이 전쟁을 겪은 후손들이 가져야 할 유비무환의 자세이다. 아울러 한반도의 평화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희생된 수많은 미군과 연합군 군인들을 상기하며 그들 국가와의 유대와 연대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김일성·스탈린, 애치슨 선언 아전인수격 해석 국방은 행동으로 뒷받침하고 결과로 보여줘야

위하여 태평양에서 미국의 방위선을 알류산열도-일본-오키나와-필리핀을 연결하는 선으로 정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 선언은 결과적으로 광복 후 군사적 우위를 가지고 수시로 틈을 노리고 있던 김일성과 스탈린이 6·25전쟁을 일으키는 촉매제 역할을 했다. 김일성의 철저한 준비와 스탈린의 야심 찬 후원으로 6·25

하면 당시 남한 인구는 2184만 명이였다. 전쟁의 결과는 너무나 참혹했다.

내년이면 6·25전쟁 70년이다.

70년 전과는 많은 것이 달라졌다. 우리의 전반적인 국력도 군사력도 강하고 튼튼해졌다. 국제정세도 당시와는 다르다.

그러나 달라지지 않은 한 가지는 그대로이다. 남북한이 38선(휴전선)을 경계로 분단된 채 아직도 대치하고 있다는